

국내 대학의 인문예술 융합교육 실태연구

이 회 용 (Lee Hee-yong)*

(E-mail : leehy@stu.ac.kr)

윤 아 영 (Yoon Ah-young)**

(E-mail : ahyoungyoon@gmail.com)

김 재 득 (Kim Jae-deunk)***

(E-mail : leadership33@naver.com)

논문접수일 : 2014년 6 월 16 일

논문심사일 : 2014년 7 월 17 일

게재확정일 : 2014년 8 월 11 일

*학위취득대학 : 독일 튀빙겐 대학교
현직: 서울신학대학교 교양학부 조교수
**학위취득대학 : 서울대학교
현직: 백석예술대학교 국악과 조교수
***학위취득대학 : 서강대학교
현직: 서강대학교 연구 교수

국내 대학의 인문예술 융합교육 실태연구*

<국문요약>

본 연구의 목적은 한국대학 내에서 시행되고 있는 인문융합교육의 현황과 실태를 파악하는 것이다. 우선 인문예술 융합교육과 관련된 기존의 선행 연구들을 검토하여 인문예술 융합교육의 현황과 실태에 대한 전반적인 논의가 아직은 체계적으로 다루어지고 있지 않은 점을 확인하였다. 이런 확인과 함께 본 연구에서는 국내대학에서 시행되고 있는 인문예술융합교육의 현황과 실태를 전반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시된 자료를 전체 대학을 대상으로 수집하였을 뿐만 아니라, 인문학 및 예술 분야 융합교육의 전문가를 대상으로 하는 그룹심층인터뷰 조사를 선행적으로 실시하였다. 이를 통해 문헌연구를 통해 접근할 수 없었던 융합교육의 현장에 대한 다양한 차원의 실제적인 지식과 정보를 얻을 수 있었고, 다른 하나는, 그 결과를 기반으로 설문조사를 작성하여 국내 대학에서 시행되고 있는 인문예술 융합교육의 교육 여건과 교육환경의 세부실태를 파악할 수 있었다. 그것으로부터 본 연구는 국내 대학에서의 인문예술 분야에서의 융합교육은 많은 우려와 반대에도 불구하고 비교적 다양한 형태로 시행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대학 내에서 인문예술 융합교육의 적절한 자리매김과 활성화 방안을 위한 지속적인 논의들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주제어] 학제간 융합교육, 인문예술 융합교육,
다층적 인문예술 융합교육

* “이 논문은 2013년도 정부재원(교육부 학술연구조성사업비)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연구되었음 (NRF-2013S1A5A2A03045319)”

I. 서론

국내 대학에서 학문간 통섭을 강조하는 융합연구와 융합교육은 하나의 트렌드가 되어 다양한 전공차원에서 뿐만 아니라, 기초교양교육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한국 대학에서 융합교육이 하나의 교육적 트렌드로 급격히 확산되는 데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다. 첫째로 각 대학들은 분화된 학문체계가 21세기에 맞는 인재양성에 한계가 있다는 것을 공감하는데서 융합교육을 대학에서는 새로운 교육적 대안으로 인식하고 있다. 더 적극적인 측면으로 급격하게 변하는 현대사회에서 융합교육은 전통적 영역에 기초한 학문영역을 넘어 통합적 관점을 통해 사물과 세계를 총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 함으로써 창의적 문제해결능력을 갖춘 인재양성에 적합하다는 인식을 확산하고 있다(홍병선 2009). 마지막으로 21세기 견잡을 수 없는 속도로 과학기술이 발전하고 이에 따라 개인적·사회적 삶의 환경의 변화에 따라 발생하는 문제가 과거와는 다르게 특정한 전문적 시각으로 해결할 수 없을 정도로 복잡한 양상을 띠고 있다. 이런 문제의 복잡성은 하나의 전문적인 시각이 아니라, 다각도의 접근성을 통해 산출될 수 있는 복합적 또는 융합적 지식과 능력을 요구한다. 이런 요구로 인해 사회와 대학에서 융합교육의 필요성과 중요성이 한층 더 촉발되고 있다. 이러한 이유들로 인해 융합교육은 융합연구에 비해 대학과 당국의 열악한 지원과 환경 속에서 있음에도 이런 시대적 필요성과 당위성으로 인해 다양한 유형으로 줄기차게 확산되고 있다

그렇지만 대학에서 산발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융합교육의 문제점들에 대해 여러 차원에서 지적되고 있다(신동희 2011). 그 중에서 두 가지 주목할 필요가 있다. 하나는 인위적 융합을 개시하는 방식은 연구자들의 상향식 필요에 의하기 보다는 하향식(top-down) 요구이고

선언적이다. 즉 대학기관의 정책적 결정이나 때로는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인위적으로 융합 연구와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다. 또 다른 하나는 융합교육이 아직은 이공계와 인문 사회계라는 뿌리 깊은 이분법과 두 분야 사이에 놓인 단단한 장벽을 극복하고 있지 못한 점이다. 한국의 여러 대학의 전공영역에서 융합연구와 융합교육을 활발하게 시행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기초교양교육에서도 융합교육의 시행이 점차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특히 기술과학과 인문사회과학 간의 융합연구와 교육의 실상을 들여다보면, 두 분야 간의 대등한 만남과 소통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박상욱 2013). 특히 기술과학 중심의 학제간 또는 초학제적 지식융합에는 해결되어야 할 여러 가지 문제들이 놓여 있다. 우선 해결되어야 하는 문제는 융합될 분야의 전문가들 간에 교류할 기회가 많지 않고, 서로의 관심과 연구방법들이 너무 다르다는 점이다. 이 난점을 해결하려면 전문가 상호 간에 주제 그리고 연구 방법들이 조정되고 합의점을 찾는 일이 선행되어야 한다. 그래서 지식융합의 현상에서 나타나고 있는 기술과학 중심의 하향식이고 선언적인 융합연구와 융합교육의 임의적이고 물리적인 결합을 넘어서야 한다. 기술과학 중심의 통합이나 종합을 지향하는 물리적 결합이 아닌, 동등한 차원에서 또는 인문사회 및 예술의 지식융합 기반에서 학문 또는 학제 상호간 화학적 결합을 산출하는 지식융합이 반드시 필요하다(송위진 2010).

최근 인문사회 및 예술의 학제 간 지식융합의 필요성과 중요성에 대한 인식의 확산과 함께, 한국연구재단의 지원 하에서 그것에 대한 연구들이 상당히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대표적으로 「인문사회를 기반으로 한 융합연구 심사평가 방법론」(채현경·최유미 2012)에서는 인문사회, 문화, 예술 간 융합연구의 지원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들을 제시하였다. 또 「인문사회분야 학제 간 융합연구의 중장기 발전을 위한 중점 추진 전략과제 발굴연구」(임기원 2011)에서는 지금 우리나라 인문사회 분야의 지식융합에 대해 요구가 높다는 것에 비해 그 지식융합에 대해 인식은 아직은 낮다는 것을 지적하고, 급변하는 시대

환경 속에서 미래사회를 대비할 수 있는 학제 간 융합연구의 성공적인 발전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였다. 여기서 핵심 사항은 학제 간 융합연구가 중장기적으로 발전하기 위해 인문사회 및 예술 간 지식융합이 체계적이고 균형적으로 발전해야 한다는 점이다. 「인문사회 기반 학제 간 융합 연구지원사업 후속사업 확대방안 연구」(이준기 2013)에서는 인문사회기반 지식융합은 인구변화, 사회복지, 사회계층화 등의 복합적인 사회문제 해결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으로 대두되었음을 지적하고, 인문사회기반 융합연구의 장애요인 분석과 활성화 방안을 도출해내고, 그것을 기반으로 후속사업 확대방안을 제안하였다. 그 외에도 2009년 이래로 지금까지 인문사회 예술을 기반으로 하는 지식융합에 대한 연구의 결과물들이 제시되었고, 지금도 다양한 주제로 활발하게 연구되고 있다.

학제 간 융합연구의 발전을 위해 인문사회 및 예술 기반 융합연구에 대한 높은 관심과 다양한 연구 결과물에 비해, 인문사회 및 예술 간 융합교육과정에 대한 연구는 많지 않다. 특히 과학 예술 간 융합교육에 비해 인지도가 아직은 낮지만, 그래도 인문 예술 간 융합교육에 대한 관심이 점차적으로 높아지고 있고, 전공분야와 기초교양교육 분야에서 그 융합교육을 실행하고 있는 대학들이 상당히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기술과학과 예술 간 융합연구나 교육에 대해서 활발한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는데 반해, 한국 대학에서 시행되고 있는 인문학과 예술 간 융합교육의 실태에 대한 연구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몇몇 논문들과 제안서들은 주로 인문예술 간 융합교육 프로그램 개발에 관한 것들이다. 이런 연구들 대부분은 문헌들 특히 앞서 발표된 문헌연구들과 몇몇 자료들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다. 문헌연구를 중심으로 이루어진 연구들은 점차적으로 누적된 정보를 체계적으로 제시하고 있으며, 몇몇 연구들은 국내외 인문예술 융합교육의 현황과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조주연 2008). 총체적인 조사 보고서 외에 해외 인문예술융합 학제에 관한 전문 분야를 중심으로 수행된 몇몇 연구(이용관·이우석 외 2006; 김태희 2012, 261-290; 조정래 2013, 25-55; 김

형숙 2012, 57-82; 정재찬 2010, 43-79)도 주로 인문 예술 융합형 학제의 신설이나 융합을 통한 전문 분야 교육과정의 정립 등의 필요성들만을 제시하고 있다. 이와 같은 연구들은 주로 어느 한 분야의 특수한 요구에 따라 이루어지기 때문에 예술이나 인문 중 한 분야에 국한되어 초점이 맞추어지는 경향이 있다. 이는 전문성이 요구되는 분야에서 필요로 하는 융합 사례연구이기에 그 범위가 당연히 한정적이 될 수밖에 없고, 국내 대학의 인문예술 융합교육의 전반적인 실태에 대한 정보와 지식을 제공하고 있지 않다.

두 가지 측면에서 볼 때, 기존연구에서는 인문 예술 간 융합교육의 실태에 대해 부분적으로만 제시하고 있어, 한국대학 융합교육의 전체 상황에 대한 충분한 이해와 바람직한 교육과정에 대한 정보가 충분히 제시되고 있지 못하다. 특히 인문예술 융합교육의 가능성에 대해서(김한승 2014), 그 융합교육의 바람직한 프로그램에 대한 장단점 등에 대해서는 다양한 견해들이 제시되고 있지만, 인문예술 간 융합교육의 체계, 다양한 차원의 융합교육, 융합교육자, 그리고 융합교육을 받는 학습자 등 인문예술 융합교육의 전반적인 현황과 실태에 대해서는 충분한 지식을 제공하고 있지 못하다. 향후 국내 대학의 인문예술 간 융합교육의 방향성과 발전을 모색하기 위해서는 현재 시행되고 있는 인문예술 간 융합교육의 현황과 실태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

이런 문제의식 하에서 본 연구는 국내 대학에서 시행되고 있는 인문예술 융합교육의 현황과 실태를 파악하는 것이다. 인문예술 융합교육에 관한 기존의 연구가 융합교육의 필요성에 대한 이론적 검토나 그에 근거한 융합교육 모델, 그리고 지식융합교육을 위한 교과목 개발 연구에 그치고 있는 것에 반해 본 실태연구는 기존의 연구가 갖는 한계를 넘어서기 위해 국내외의 4년제 대학 전체를 대상으로 ‘혼합 연구설계’(mixed research design) 방법을 통해 인문예술 융합교육의 교육과정의 현황과 특징을 포괄적으로 파악하고자 한다. 본 연구를 통해서 도출될 인문예술융합교육 대한 포괄적인 실태이해는 인문예술 융합교

육만이 아니라, 인문사회 및 예술 간 융합교육의 방향성과 활성화 방안을 위한 차후 논의의 중요한 기반이 될 것이다.

II. 선행연구와 연구방법

1. 선행연구

학제간 융합연구와 융합교육에 대한 이론적 논의가 대학 내외적으로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많은 연구논문들이 나오고 있다. 그에 비해 인문예술융합교육에 대한 논의는 이제 시작 단계에 있다. 특히 최근 몇 년간 교양차원이나 전공차원에서 융합교육에 대한 논의는 꾸준히 이루어져 왔지만, 인문사회 및 예술 간 융합교육에 대한 저서나 전문 논문은 몇 편을 제외하고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이런 현실을 인식하면서 본 연구는 다양한 방법을 통해 즉 학회발표, 컨퍼런스, 학회 논문집 그리고 대학 홈페이지를 통해 수집한 인문예술융합교육에 관한 논문들을 분석할 것이다. 이런 분석을 통해 한국 대학에서 시행되고 있는 인문예술융합교육의 현황과 실태에 접근해 갈 것이다.

윤린·김인선 등(2011)과 김왕동(2012)은 융합교육 분야를 크게 세 가지, 인지과학분야, 나노 및 바이오 분야 그리고 예술과 기술의 융합분야로 나누고, 대학에서 각각의 분야별로 융합교육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고 진단한다. 이런 진단을 근거로 대학 안팎에서 시대가 요구하는 창의적 인재양성을 위해 기술과학과 예술의 융합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과학과 예술의 융합교육의 필요성과 달리 손동현(2009)은 교육의 중심을 전문지식교육에서 기초능력교육, 교양교육, 융복합교육으로 옮겨가야 함을 역설한다. 융복합교육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교양기초교육의 분야에서의 융복합적 교양교육 모델이 반드시 필요함을 역설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인문사회 및 예술의 융복합 교육의 필요성과 그 가치가 전제되어 있다.

이희용(2012)은 융합교육에 대한 기존의 이론적 논의를 넘어서 융합 교과과정 개발을 위한 실천적 논의를 전개한다. 이 논문에서 그는 현재

국내의 대학에서 확산되고 있는 융복합 교과목의 실태를 파악하고, 이를 유형별로 제시하고 있다. 여기에서 제시된 모델들을 인문예술융합교과목을 찾아볼 수 있는데, 주로 자연과학 및 사회과학과 연결된 초학제간 융합모델이었고, 순수한 인문예술학제간 교과모델은 단지 몇 개 (통합핵심교육(미학+창의예술+언어+문학, 아주사 퍼시픽대), 문화마케팅(인문+예술, 한양대), 융복합교양교과목(문학+음악예술+교육학, 조선대))만이 제시되었다.

이희용(2013)은 인문예술 융합교육을 위한 하나의 융합교과목을 개발하여 시행하였는데, 글로벌 시대에 맞는 시민정신의 특성들을 인문학과 문화예술(문학, 철학, 종교, 예술, 문화)의 측면에서 융합적으로 형성시킬 수 있는 교과를 구성하고 있다. 이는 인문예술 융합교육과정의 하나의 실천사례를 보여주는 것이다. 서기자(2013)도 융복합 교과개발의 다양한 방식을 제시하고, 그 효과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특히 영화와 같은 예술적 장르를 매개로 한 인문, 사회, 자연과학의 통섭적 접근, 인문학 콘서트의 형식을 취한 인문, 사회, 예술의 융합적 이해, 읽기-쓰기-말하기를 통합한 교양특강 등은 한국 대학 학부교육의 현실에 적합한 융복합 교과의 대안을 제시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허영주(2013)는 현재 국내 대학에서 시행되고 있는 융합교육의 전반적인 문제점을 파악하고, 그에 대한 개선방안을 논의한다. 현재 대학에서 시행되고 있는 융합교육의 문제점으로는 1) 인재상 및 교육목표의 부재, 2) 단편적, 백화점식 교과개발, 3) 유사전공, 유사학과 간 단순 융합, 4) 병렬적 팀티칭 교수, 5) 교육평가를 위한 체계 부재, 6) 융합교육 활성화를 위한 인적·재정적 학사지원 체계의 미확립 등을 지적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몇 가지 방안들을 자세히 논의하고 있다. 그녀는 융합교육이 1) 학습자에 맞는 명확한 목적과 목표를 설정, 2) 주제나 문제를 중심으로 하는 승법적·현장중심적·학생중심적 교과 편성, 3) 융합교과개발위원회 등과 같은 행정적·제도적 학사운영체제의 정비 등을 시급한 개선방안으로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지적은 인문사회과학 및 예술의 융합교육에 한정된 것이 아닌 대학 내 융합교육 전반에 관한 지적사항이다.

본 연구는 기존의 연구를 통해 몇 가지 사항들을 확인할 수 있었다. 첫째는 창의적 인재양성을 위해 융합교육이 불가피한 대안교육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실정이다. 어느 유형의 융합교육 분야를 막론하고 융합교육의 필요성과 중요성에는 이견이 없다. 둘째로 인문예술 융합교육의 실천적 실행에 대한 논의들은 인문예술융합교육을 시행하고 있는 대학의 교과과정이나 교과목 현황과 실태에 대해 단편적 지식만을 제공하고 있다. 특히 몇몇 연구들이 여러 방식의 인문 예술 간 융합교육과 프로그램 개발 및 적용을 제안하고 있지만, 인문예술 융합교육의 실태와 방향성을 제대로 제시하지 못하고, 또 국내대학의 인문 예술 간 융합교육의 현황과 특징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셋째는 국내 대학의 융합교육 관련 가장 최근의 연구(허영주 2013; 김혜영 2013)는 대학의 융합교육의 실태를 상당히 잘 진단하고, 국내 대학의 융합교육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들을 명시하고 있고, 그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이 연구들 또한 융합교육에 대한 문헌과 기존의 연구자료들을 주로 사용함으로써 융합 교육자들의 실제 경험에 근거한 목소리와 학습자들의 실제적인 경험들 토대로 나온 지표와 결과 내용을 충분히 반영하고 있지 못하다. 또 그들은 다른 연구자들의 설문결과에 근거하여 융합교육의 현황과 문제점을 지적하고, 그에 따라 개선방안들을 제시하고 있는데 불과하다. 마지막으로, 향후 융합교육의 발전적인 측면에서 볼 때, 기술과학 중심의 초학제간 융합교육의 기반이 될 인문예술 학제간 융합교육의 실태와 진단에 대한 논의와 연구결과물이 전무한 것을 확인하였다.

이처럼 지금까지의 연구들은 특정한 대학 또는 몇몇 대학의 융합교육과정 사례만을 분석하고, 그것에 근거하여 융합교육의 현황과 문제점, 그리고 개선방안을 제안하는 것에 그치고 있어, 국내 대학 학부 교육 내에서 실행되고 있는 인문예술융합교육과정의 현황과 실태에 대한 저급의 한계를 보여주었다. 기존의 융합연구의 문제점과 한계를 인식한 본 연구는 국내 대학에서 실행하고 있는 인문예술 융합교육과정의 전반적인 실태를 이해하는 데 적절한 실제적인 데이터와 결과들

을 도출하기 위해 연구설계를 세우고, 본 연구계획을 체계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다양한 연구방법들을 도입하였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연구진행과정에서 순차적이고 변화적인 전략을 세웠으며, 더 나아가 인문 예술 간 융합교육에 대한 기존 자료를 재정리하거나, 실증적 근거 없이 자신의 의견을 피력하는 연구물의 성과와 한계를 확인하고, 동시에 그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신뢰성과 타당성을 확보할 수 있는 다양한 연구방법을 단계적으로 활용하고자 하였다. 한국 대학 내 인문융합교육의 전반적인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본 연구는 상호적으로 연결된 이 연구방법들을 통해 문서화된 융합교육 시스템과 교육과정 이외에도 교수자와 학습자들의 융합교육에 대한 인식과 경험내용을 확인하였다.

2. 연구방법

국내대학의 인문예술 간 융합교육의 전반적인 실태에 적합하게 접근하기 위해 이론연구뿐만 아니라, 인문예술 융합교육 과정들 분석, 설문조사를 통한 빈도 및 교차 분석 그리고 자료 해석 등 통합적인 혼합연구 방법을 사용하였다. 실태 연구방법의 핵심은 인터뷰와 설문조사로 크게 3단계로 진행되었다. 첫 번째는 융합교과목 개발이나 융합교육의 경험을 가진 전문가들 중심으로 이루어진 ‘포커스그룹인터뷰(FGI)’ 시행이고, 두 번째는 한국대학에서 시행되고 있는 융합교육 일반현황을 확인하기 위한 전체 대학 기초조사를 시행하였다. 마지막으로 기초조사를 기반으로 하여 인문예술 융합교육 과정의 세부실태를 확인하기 위해 전문가와 학습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오프라인 방식과 온라인방식으로 실행하였다.

1) 포커스 그룹 인터뷰(FGI)

본 연구팀은 설문조사 문항을 임의로 작성하지 않고, 융합교육의

과정과 현장에 맞게 작성하기 위해 사전면담 조사인 ‘포커스그룹인터뷰’(Focus Group Interview)를 시행하였다. 융합교육의 경험을 가진 대학교수 20명을 1차로 리스트1)로 작성하여, 개별적으로 접촉하였으며, 그들 중에서 인문예술융합교육의 유경험, 지역 등을 안배하여 4명을 최종 선정하였다.

〈표 1〉 국내대학 인문예술융합교육
실태조사를 위한 FGI 참여자

분류	이름	대학교 및 학과	전공 영역	융합 분야	지역	비고
인문-예술	A 교수	E대학교 기초교양교육원	영화 영상학	인문학과 예술	대구	
	B 교수	F대학교 교양학부	음악 인류학	인문학과 예술	대전	
	C 교수	G대학교 교양학부	역사	인문학과 기술 과학	충남	
	D 교수	H대학교 공연구획경영학과	예술 경영	인문학과 예술	충남	

본 연구팀은 포커스그룹인터뷰 실행에서 미리 준비한 질문에 따라 순차적으로 질문을 하고 참석자들이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하는 형식으로 총 3시간 동안 FGI를 시행하였다. FGI 당일 날 사용된 질문은 공동연구 내에서 합의 하에 정해진 것이고, 아래와 같이 크게 4개의 범주로 이루어졌다.

1) 서울: K교수(H대학), K교수(D대학), K교수(K대학), Y교수(S대학), P교수(S대학), O교수(S대학), S교수(K대학), 경기: H교수(C대학), H교수(C대학), 인천: P교수(I대학), 대구: S교수(C대학), 대전: S교수(D대학), S교수(C대학), 천안: K교수(D대학), 충남: P교수(C대학), C교수(H대학), 경남: J교수(Y대학), 광주: P교수(G대학)

〈표 2〉 국내대학 융합교육 실태조사를 위한 FGI 질문 틀

분류	주요 질문 사항	비고
융합교육의 인식도	융합교육은 무엇이고 왜 필요한가?	
	귀하의 학교의 융합교육에 대한 현황은 어떠한가?	
융합교육의 시스템과 교육과정	융합교육을 위한 행정적 지원, 재정적 지원, 시설적 지원, 기술적 지원, 그리고 기타 지원이 있는가?	
	융합교육과정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	융합 교과목 교수학습방법 평가 방법 등
융합교육의 교수자와 학습자	교수자 선정, 교수자의 교육역량, 융합교육에 대한 교수님들이 가지고 있는 만족도는 어떻고, 어떤 어려움이 있는가?	
	학습자들은 어떤 동기와 과정으로 참여하고 있는가? 그들의 학습 역량은 어떠한가? 어떤 교육성과를 보여주었는가? 그들의 만족도는 어느 정도인가? 그들이 겪는 어려움은 어떤 것들이 있는가?	
융합교육의 장단점과 모델	융합교육의 장단점은 무엇인가? 시급히 개선, 보완되어야 할 점은?	
	성공적 융합교육을 위한 모델이 있는가? 이 모델이 현실적 대안이 될 수 있는가?	

본 연구팀은 FGI를 통해 두 가지 가치 있는 성과를 얻을 수 있었다. 하나는, 문헌연구를 통해 접근할 수 없었던 융합교육의 현장에 대한 다양한 차원의 실제적인 지식과 정보를 얻을 수 있었다. 또 다른 하나는, 그 결과를 국내 대학에서 실행되고 있는 융합교육의 교육여건

과 교육환경의 세부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전문가를 위한 설문조사 문항을 작성하는 데 일차적으로 활용하였다.²⁾ 이렇게 작성된 설문은 대학의 일반 교수자들과 대학에서 융합교육을 실행하고 있는 전문교수자들을 중심으로 진행되었다.

2) 국내 대학 인문예술융합교육 현상에 대한 기초조사

본 연구에서는 국내 대학에서 실행되고 있는 인문예술융합교육의 일반현상을 확인하기 위해 전국대학을 대상으로 기초조사를 실시하였다. 기초조사방법은 먼저 대학의 홈페이지 상에 나타난 자료를 기반으로 하였고, 융합교육이 명확하지 않은 대학에는 직접 전화를 걸어서 확인하는 방식을 취했다. 전국대학 기초조사를 통해서 융합교육의 현황에 대해 몇 가지를 확인할 수 있었다. (참고로) 본 연구는 4년제 대학 총 217개를 대상으로 융합교육 실시 현황을 조사하였다.

첫째로, 조사 결과(를 통해) 63개 외에 165개 대학에서는 융합교육을 시행하고 있지 않았으며, 그 중에서 39개 대학에서는 명목상 또는 융합교육체계 없이 융합과목 중심의 융합교육을 시행하고 있었으며, 24개 대학에서는 융합교육을 비교적 잘 시행하고 있었다. 다른 한편 교육대학 12개 진부에서 융합교육을 전혀 시행하고 있지 않았다. 둘째로, 지역마다 편차가 있지만, 융합교육을 전국적으로 시행하고 있었다. 그러나 인문예술융합교육은 주로 서울의 대학들과 몇 개의 지방대학에서 시행되고 있었다. 셋째로, 대학에서 융합교육은 점차로 확산되고 있는 추세다. 인문예술융합교육도 아직은 초기 단계에 있지만 다양한 유형으로 상당히 활발하게 그리고 적극적인 형태로 발전하고 있었다. 교양교육 차원과 전공분야에서도 인문예술지식을 위한 융합교과목들이 다양하게 개발되었고, 그에 대한 관심 또한 증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전공 차원에서는 인문예술융합교육이 다층위적으로 시행되고

2) 크레스웰(Cresswell 2013)에 의하면 이 연구설계는 유형화한 혼합방법(mixed method)의 탐색적 설계(exploratory design)로서 먼저 현상을 탐색하기 위하여 질적 자료를 수집하고 이에 근거하여 양적 자료를 수집하는 것이다.

있었다. 마지막으로, 국내 대학에서 기초교양교육 차원이든 전공차원이든 인문예술 융합교육을 시행하는 곳은 18개 대학으로 확인되었다.

3) 설문조사 시행

<표 3> 설문 조사 실시 표

분 류		응답자/표본	설문실시 기간	응답률
학습자	경험자	287명/300명	2013.11.1.~12.5	95.6%
	비경험자	492명/500명		98.4%
전문가	실시대학 전문가	33명/81명	2014. 2.12 ~3.25	40.7%
	일반전문가	54명/145명	2014년 2.13~3.22	37.2%

인문예술융합교육의 현황과 실태에 대한 설문조사는 2차에 걸쳐서 실시되었고, 오프라인(Off-Line)과 온라인(On-Line) 두 가지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오프라인 설문조사는 학습자를 대상으로 실행되었고, 온라인 설문조사는 대학의 교육 전문가를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학습자를 대상³⁾으로 하는 융합교육 실태 파악을 위한 설문지는 연구팀 내에서 상호 간 논의하고 합의하에 작성되었다. 오프라인 설문 실행의 어려움 점을 감안하여, 각 학교와 지역별로 조사요원 5명을 동원하여 직접 배부하고, 실태에 대한 신뢰성을 확보하고 회수율을 높이고자 면접을 겸한 자기기입(self-administered) 방식을 사용하였다. 실태관련 설문지는 인문예술융합교육 유경험자와 무경험자를 각각 300, 500매의 설문지를 의뢰하였던 바, 287매, 492를 회수하였고, 총 779매(21매는

3) 연구를 위한 인구통계학적 분포는 성별, 참여한 분야, 학년, 전공, 학교 등을 다양화함으로써 설문결과에 대한 대표성을 높이려고 노력하였다. 조사 대상자 가운데 남자는 159명(56.2%), 여자 124명(43.8%)으로 조사되었다. 참여한 분야는 인문학 + 사회과학 91명(33.2%), 인문학 + 예술학 72명(26.2%), 사회과학 + 예술학 34명(12.4%) 공학 + 인문학 38명(13.9%), 기타 39명(14.2%) 등이다. 학년별로는 1학년 93명(33.2%), 2학년 92명(32.9%), 3학년 59명(21.1%), 4학년 36명(32.9%) 등으로 조사하였다.

불완전한 작성으로 제외함)를 통계 처리하였다.

오프라인 설문조사는 2가지 방향에서 실행되었다. 하나는 융합교육 경험자를 대상으로 이루어졌고, 다른 하나는 융합교육을 받아 본 경험이 없는 비경험자를 대상으로 진행되었다. 오프라인 설문조사의 대상 범위에는 특정한 지역을 넘어 전국에 걸쳐서 다양한 지역(서울 3개 대학, 대구 1개 대학, 대전 1개 대학, 부천 1개 대학, 안성 1개 대학, 천안 2개 대학 등)의 대학들이 포함되었다.

전문 교수자 대상 인문예술융합교육 설문지는 ‘포커스그룹인터뷰’를 통해 연구팀 내에서 상호 간 교차 검토하고 합의하에 작성되었으며, 온라인 설문조사도 2 가지 방향에서 실행되었다. 하나는 대학에서 가르치고 있는 일반 교수자를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위의 표에서 나타나 듯이, 145명의 전문가를 대상으로 설문이 이루어졌고, 그 중에서 54명이 참여하여, 응답률 37.2%를 나타냈다. 다른 하나는 전국대학의 기초조사를 통해 확보된 융합교육 시행 대학의 전문교수를 대상으로 설문조사가 이루어졌다. 총 77개 대학 81명의 전문가들에게 사전적 동의 없이 설문을 보냈다. 그 중에서 33명이 설문에 참여하여, 총 40.7%를 나타냈다.

본 연구에서는 통계의 정확성을 기하기 위하여 설문응답자의 인구통계학적 분포비율을 고려하여 보완적으로 조사를 실시하였고, 대표성과 신뢰성을 가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지역별, 학교별 비율이 고르게 유지되도록 설문대상자를 선정하였다. 4)

4) 사전적 설문조사(pilot-test)를 기초로 어느 정도 타당성을 가지는 변수를 선정하여 본 조사를 실시한 것이다. 인구통계변수를 제외한 모든 변수는 Likert의 5점 척도로 측정하였다.(1=매우 중요하지 않다. 5=매우 중요하다). 통계처리는 백분율·빈도·분산분석 등을 일괄 입력·분석하였고 자료분석은 현황과약과 의견도출을 위해 주로 빈도와 백분율을 기초로 하였으며 평균과 표준편차에 대해서도 조사 결과표에 명시하였다. 이 모든 설문조사의 분석은 PASW 21.0을 이용하여 통계 처리하였다. 또한 본 설문조사에서는 유의수준을 $p<0.01$ 로 하여 분석을 실시하였다.

Ⅲ. 국내 대학 인문예술융합교육의 현황

1. 인문예술융합교육의 유형화

국내대학에서 시행되고 있는 인문예술융합교육은 아래 <표 4>에서 볼 수 있듯이 몇 가지 유형으로 범주화된다. 교양학부에서 융합교육을 개개의 과목명으로 표시하고 있으며, 학부차원에서는 ‘자유전공학부’로, 그리고 전공차원에서는 ‘연계전공’, ‘융합전공’, 그리고 ‘학생설계전공’으로 명명하고 있다. 즉 교양학부에서의 융합교육은 융합의 범위를 교과목에 한정하여, 대학과 교수자가 개발한 ‘융합교과목’을 학생들에게 제공하는 방식으로 시행된다. 자유전공학부에서의 융합교육은 학과 내에서 대학이 학생들에게 ‘학과 단위로 융합교육’을 제공하는 방식이다.

<표 4> 국내 대학 인문예술융합교육의 변별적 특징

변별요소	교양교육 차원 (융합교과목명)	자유전공학부 차원 (학과명)	연계전공/융합전공 차원 (전공과정)	학생설계 차원 (설계전공명)
구성 주체	대학	대학	대학, 학생	학생
융합 범위	교양교육 내	단과대학 내	단과대학 내 혹은 전체 대학 내	전체 대학 내
융합 대상	교과목	학과	전공	전공
졸업 증서 기재 여부	무관	규정된 전공명	규정된 전공명	새로운 전공명

연계전공이나 융합전공에서의 융합교육은 단과대학 혹은 학과 사이에서 이미 개설된 학부나 학과에서 학생들 자신이 만든 ‘융합된 진

공'을 선택할 수 있는 방식이고, 학생설계전공은 전체대학 안에서 학생이 기존의 학과에 존재하지 않는 '완전히 새로운 융합과정'을 만들어가는 방식이다.

이 외에도 '융합'이라는 명칭을 드러내지는 않지만 융합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곳이 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이화여자대학교 스크랜튼 학부, 숭실대학교 베어드학부, 경희대학교의 후마니타스학부, 위덕대학교의 다빈치 커리, 동아대학교 석당인재학부, 인제대학교의 인당 글로벌리더스이다.

따라서 융합교육을 논의하기 위해서는 융합교육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융합교육의 주체가 누구인가, 융합교육은 얼마나 다층적인가가 먼저 구분되어야 한다.

먼저, 인문예술융합교육을 융합의 범위를 통해 유형화하여 살펴보면, 교과목의 융합으로 새롭게 개설된 과목들과 기존의 과목으로 나눌 수 있다. 과목개발을 통해 새로움을 창출하려고 노력하는 대표적인 예로 동서대학교의 '영화 속 심리이야기'와 '공예와 지적재산', 경희대학교의 '서양미술사의 바이블', '글로벌 K-pop과 콘텐츠 탐험', '아프리카 문화예술탐험', 서울신학대학교의 '글로벌시민정신'이 있다. 또한, 교과목의 융합과는 다르지만 기존의 과목을 고수하며 이루어진 인문학 또는 예술 교과목들을 통해 학생들이 각각 수강을 취사선택하게 할 수 있게 하여 융합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대학도 있다.

둘째, 융합의 주체를 통해 인문예술융합교육을 유형화하여 살펴보면, 대학이 이전보다 더 적극적으로 학부와 학과를 구성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서울대학교의 문화예술전공과 미술역사전공, 한국예술종합학교의 영화과와 같은 경우와 전통적으로 예술에 관심을 가지고 전공트랙을 구성하고 있는 홍익대학교가 대표적인 예이다. 이와는 다르게 융합의 주체가 학생일 경우에도 학생들은 여러 융합전공들을 바탕으로 전공들을 설계하거나 선택할 수 있게 하는 대학도 있다.

마지막으로, 인문예술융합교육을 융합의 층위를 통해 유형화하여 살펴보면, 융합교육의 시행과 학생들에게 의무적으로 2개의 전공을 택

하게 한 것을 알 수 있다. 서울대학교에서는 학생들로 하여금 2009년부터 2개 이상의 전공을 의무적으로 택하게 하였다. 그래서 '기존개설전공+학생설계전공'과 '융합학부(학과)개설전공+학생설계전공' 등과 같은 조합이 나타난다. 여기서 전공을 3개까지 택하게 되면 '기존개설전공+융합학부(학과)개설전공+학생설계전공'과 같은 방식으로 경우의 수는 늘어난다. 이처럼 기존전공+기존전공을 제외하고, 대학이 만든 융합교육을 학생이 한 번 더 융합하여 전공을 택함으로써 그 융합의 층위가 다층적으로 된다. 이와 같은 다층적인 융합전공트랙은 서울대학교뿐만 아니라, 이화여자대학교의 스크랜튼학부에서도 '기존전공+학생설계전공'으로 시행하고 있다. 이 외에도 많은 대학에서 학생설계과정과 같은 형태를 시행하려고 준비하고 있다.

2. 인문예술융합교육의 현황

해외 몇몇 대학의 경우에서처럼, 몇몇 국내 대학에서도 인문예술 융합교육은 순수예술과 순수인문학으로 독립되어 존재하기도 하지만, 이미 학과(부)차원 혹은 학생이 설계해서 융합을 하는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과거와는 달라진 현대사회의 경향을 반영한다. 이와 같은 특징을 바탕으로 실제로 실행되고 유형과 프로그램들이 다음과 같이 정리될 수 있다.

- 5) 해외 대학에서 실시되는 인문예술 융합교육은 오랜 전통을 가지고 있다. 특히 미국 유수 대학에서의 다양한 융합교육 프로그램들 중에서도 인문학과 예술(Humanities and Arts)의 융합교육은 별도의 분과를 둘 만큼 독립적이며, 오히려 융합교육에서 인문예술의 융합은 필수적인 것으로 인식된다(진선자 2011). 인문학과 예술의 융합교육을 실시하는 전통적인 대학으로는 미국의 시카고, 버클리, 하버드, 스탠포드 대학, 그리고 영국의 서섹스 대학, 핀란드의 헬싱키 대학, 그리고 프랑스 파리3대학 등이 있다. 특히 프랑스의 파리3 대학의 가장 큰 특징은 복수전공이 활성화되어 있다는 점이다. 인문학부에 설치되어 있는 학과들 사이에 학문적 연계가 활성화되어 있고 어느 학과의 전공을 선택하더라도 다른 학과의 다른 전공과 연결될 수 있도록 융합 프로그램이 잘 설계되어 있는 것이 이 대학 교 교육의 특성이라고 할 수 있다(한지혜 2006).

<표 6> 전공교육 내 인문예술융합교육 현황

해당학교	융합전공트랙		
	<가-유형> 자유전공학부 차원 (학과/전공명)	<나-유형> 연계전공/ 융합전공 차원 (전공과정)	<다-유형> 학생설계 차원 (설계전공명)
서울대학교	자유전공학부(문화예술전공, 미술·역사전공, 음악전공 등)	연계전공(음악대학 기악과 내 연계과정)	학생설계전공(승인후표기)
건국대학교		연계전공(유림문화전공)	
고려대학교		연계전공(디지털매체문화전공)	
동국대학교		연계전공(디자인공학, 문화기획, 문화학, 문화공학전공)	
성신여자대학교		융합전공(문화예술경영학과(공연예술, 문화경영기회전공))	
이화여자대학교			융합전공(스칼라트학부, 통합적문화연구트랙)
청운대학교	공연기획경영학과(문화비즈니스, 공연축제이벤트, 예술경영, 엔터테인먼트 전공)		
한국예술종합학교	예술교양학부(영화과, 방송영상과, 멀티미디어영상과)		
한양대학교	문화콘텐츠학과		
홍익대학교	디자인경영전문화(디자인경영경제법학)		전문화자유설계(디자인경영경제산업융합법학)

<표 5> 교양교육 내 인문예술융합교육 현황

해당학교	융합교양교육 차원	융합교과목명	특징
서울대학교	핵심교양	(현대음악의 이해, 한국음악의 이해, 서양연극의 이해 등)	
	핵심교양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학창의성 예술과학 융합교육 	인문예술만이 아니라, 사회과학과 기술과학도 연관
연세대학교	융합교양	도시, 예술, 문학	필수교양의 간학문적 교과목
경희대학교	교양학부(후마니티스칼리지)	서양미술사와 바이블, 글로벌 K-Pop과 콘텐츠 탐험, 아프리카 문화예술탐험 등	
대전대학교	중점교양교육	인문융합의 이해와 예술문화의 융합적 이해	필수로 시행
동서대학교	융합교육	경영과 예술, 공예와 지적재산, 미술과 신화·디자인, 미술치료, 영화 속 심리학 이야기, 글로벌시대의 화법과 문화, 영화로 읽는 서양문명 등	
서울신학대학교	융합교육	인문예술 융합교과목: 글로벌시민정신	융합교과서를 가지고 수업
한양대학교	융합교육	문화예술 마케팅	2개 이상 다른 과목으로 융합
		수행인문학, 글로벌(문화, 과학, 공학)	기술과학과 연관
계명대학교	중점교양 중 문학과 예술	인문학·예술 융복합교과목 : 그림읽기로 세상보기	
조선대학교	융합교육	다문화 역량개발	인문예술 및 교육학과 연관

<표 5>에서 볼 수 있듯이, 국내 저명한 대학에서는 융합교육을 위한 전공과정이 활발하게 운영되고 융합교과목이 다양하게 개발되어 왔다. 각 대학들의 융합교육의 노력들은 다양한 유형으로 다양한 특

징들을 보여주고 있으나, 기본적인 특징은 대부분 인문학 특히 철학과 언어학을 융합교과에 포함시키고 있다는 점이다. 교양교육차원에서 시행되고 있는 융합교과목들이 주로 인문학+과학+예술의 복합적인 형태를 지니고 있으나, 그와 더불어 인문예술 융합교육을 위한 교양교과목을 개발하고 시행하는 대학들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

<표6>을 통해 볼 수 있듯이, 국내 대학에서 인문예술융합교육은 다층적(multi-layered)으로 시행되고 있다. 이는 교양교육차원에서 다양한 융합교과목과 더불어 전공 차원에서 융합의 3가지 유형에서 다양한 층위가 확연히 드러나고 있다. 이는 융합된 교과목을 수강하는 것이 학생들의 전공으로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대학에서 융합교육을 표방하고 실시하고 있는 교육이라는 큰 관점에서 보았을 때, 이미 학생들은 전공 외에도 융합교과목을 기본적으로 이수해야 하는 것으로 바뀌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층위가 다른 융합교육은 해외 우수 대학에서도 실시하고 있는 융합교육형태이다. 예를 들면, 아이비리그에 개설된 융합교육 전공 트랙에 있는 학생들은 반드시 이 과정에 새롭게 개설된 융합교과목들을 들어야 하는 것과 같은 것이다.

3. 인문예술융합교육의 주된 구성

국내대학의 인문예술융합교육은 인문학(문학, 법학, 사학, 심리학)과 예술(미술, 음악, 영화, 공연) 등의 분야들을 융합하여 경영학, 경제학, 공학과의 융합까지 시도하고 있다. 영화나 공연 등과 같은 전공이 대표적인 예이다. 다만, 전통적으로 한 분야에 치중되어 융합이 잘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경우가 있다. 또한, 인문예술의 특화된 융합이라기보다는 광범위한 문화융합으로 그 범위를 정하는 것이 무의미한 경우도 있다. 인문예술융합교육에 대한 국내대학이 개설해 놓은 전공과정의 분야별 양상을 다음과 같이 구성할 수 있다.

<표 7> 국내 대학 인문예술융합교육의 주된 구성

분야 과정(전공)	인문학				예술				기타 경영학, 경제학, 공학 등
	문 학	철 학	사 학	법 학	음 악	미 술	영 화	공 연	
서울대	문화예술 전공	○	○	○	○	○	○	○	
	미술·역사 전공			○		○			
	음악전공					○			
	기악과 내 연계과정					○			
건대	유럽문화 전공	○	○	○	○	○	○	○	
고대	디지털매체 문화전공	○	○	○	○	○	○	○	○(공학)
	디자인공학							○	○(공학)
동국대	문화기획	○	○	○	○	○	○	○	○(경영학)
	문화학	○	○	○	○	○	○	○	
	문화공학	○	○	○	○	○	○	○	○(공학)
성신여대	공연예술					○	○	○	○
	문화경영 기획	○	○	○	○	○	○	○	○(경영)
이화여대	통합적 문화 연구트랙	○	○	○	○	○	○	○	○
청운대	공연기획 경영학과	○	○	○	○	○	○	○	○(경영, 행정)
한양대	영화과						○		○(공학, 경영, 경제)
	방송영상과						○		○(공학, 경영, 경제)
	멀티미디어 영상과						○		○(공학)
한양대	문화콘텐츠 학과	○	○	○	○	○	○	○	○(공학, 경영, 경제)
홍익대	디자인경영 경제법학				○			○	○(경영, 경제)
	디자인경영 경제산업공 학법학				○			○	○(경영, 경제, 공학)

<표 7>은 현재 국내 4년제 종합대학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것을 기초로 구성한 것이다. 총 217개 대학(본교 및 캠퍼스 포함)을 대상으로 하여 조사해 보았을 때, 인문예술융합전공트랙을 설치하고 있는 학교는 아직은 10개(4.15%)로 매우 낮은 비율을 보이고 있다. 인문예술 융합교육의 전공트랙은 예술중점대학을 중심으로 특화되었다. 특히, 음악분야보다 미술, 영화분야에서 특화되어 타학문과의 융합이 다면적으로 실시되고 있다. 실제로 경영, 경제, 행정과의 융합이 가장 많이 드러났으며, 영화와 같은 디지털 매체에 기반을 둔 전공은 공학과의 융합이 비중이 높았다. 공연예술이나 문화기획과 같은 전공의 경우는 공연이라고 하는 전공의 융합적 성격으로 인해 이미 융합된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사회적 실용성차원에서 경영, 경제, 법학 등과의 융합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었다.

IV. 국내 대학 인문예술 융합교육과정 실태이해

1. 인식과 제도(시스템)

학습자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 예술학을 접목 한 융합교육에서 인문학+예술학은 전체적인 평균값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3.68)으로 나타났다.⁶⁾ 특히, 학습자는 수강자의 강의 열정(3.99)을 가장 높게 평가하였으며, 그 외에 융합교육의 실현성(3.74), 학습방법의 효과성(3.70), 학습의 동기유발(3.62), 목표성취(3.62)순으로 평가하였다. 따라서 우리는 인문학+예술학이 상대적으로 인식과 제도측면에서 높은 평가를 받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6) 학문 영역 간 차이를 비교하기 위해 분산분석(ANOVA)을 실시하였다.

<표 8> 인식과 제도(시스템)의 차이

설문항목	인식과 제도의 차이						집단간 차이 비교
	인문학+사회과학	인문학+예술학	사회과학+예술학	공학+인문학	기타	전체평균	
나는 (전반적)인 융합교육에 흥미가 있다.***	3.56	3.52	3.29	3.50	3.74	3.52	4.27
나는 내가 수강한 융합교육에 흥미를 느꼈다.	3.50	3.59	3.50	3.56	3.82	3.59	2.33
나는 내가 수강한 수업의 강의방법에 만족한다.	3.62	3.79	3.53	3.65	3.82	3.68	3.11
나는 내가 수강한 수업설계의 적절성에 만족한다.	3.56	3.61	3.65	3.57	3.69	3.62	3.33
나는 내가 수강한 강의자의 열정에 만족한다.***	3.92	3.99	3.94	3.91	4.26	4.00	2.22
나는 내가 수강한 강의자료에 만족한다.	3.65	3.70	3.67	3.58	3.90	3.70	1.34
이 강의는 나의 발전에 연계성이 높다.	3.44	3.65	3.18	3.18	3.72	3.43	1.45
이 강의는 나의 학습동기 유발에 도움이 된다.	3.48	3.62	3.41	3.33	3.64	3.50	0.77
이 강의는 교육과정에 소개된 교육목표를 어느 정도 성취하였다고 생각한다.**	3.54	3.62	3.47	3.45	3.90	3.60	4.33
이 강의의 교육과정은 학생들의 교육 니즈(욕구)에 얼마나 부합한다.**	3.37	3.51	3.53	3.50	3.64	3.51	3.32
이 강의는 학생의 학업에 실질적인 도움이 된다.	3.49	3.51	3.36	3.55	3.69	3.52	2.48
이 강의에서 사용된 학습방법 (예: 토론, 연습과제, 학습활동 ...)은 얼마나 효과적이다.***	3.63	3.70	3.62	3.60	3.79	3.67	1.22
융합교육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3.90	3.99	3.70	4.03	4.19	3.96	2.09
현실적으로 진정한 융합교육이 실현될 수 있다.	3.37	3.74	3.45	3.56	3.81	3.59	1.32
전 체	3.57	3.68	3.52	3.57	3.83	3.63	

주) * p<.05 ** p<.01 *** p<.00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함 (양측검정)

그렇다면 인문예술융합교육이 사회예술융합교육과 다른 분야에 비해 높은 평가를 받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것은 인문예술융합교육이 오늘날의 형태로써 국내대학에서 학부교양교육 내에서 시행되면서 학습자에게 좀 더 친숙하게 느껴졌기 때문일 것이다. 반면, 사회예술융합교육은 인문예술융합교육에 비해 교과목이 적게 개설될 뿐만 아니라, 개설되는 교과목 또한 대학원이상의 과정에서나 볼 수 있어서 상대적으로 낮은 평가(3.52)를 받았다. 여기서 우리는 학습자들이 인문예술융합교육을 높게 평가하는 이유가 융합교육의 노출성과 관련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2. 융합교육자

융합교육자에 대한 전체적인 평가에서 인문학+예술학(4.01)이 다른 분야에 비해 모든 항목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강의의 준비성(4.25), 지식과 경험정도(4.13), 흥미유도 능력(4.08), 설명의 명확성(4.07) 등에서 높은 수치를 나타내고 있는데, 여기서 강의의 준비성이 가장 높게 나온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앞의 장 ‘인식과 제도’에서도 살펴보았듯이, 인문예술 융합교육에 대한 평가가 높게 나타나는 것은 학생들이 친숙하게 느낄 수 있기 때문이다. 물론, 융합교육자에 대한 설문에서 교수의 지식정도나 강의 준비 부분에서 월등하게 높은 만족도가 나타난 것에 대해서는 단순히 학습자가 친숙한 것을 높게 평가하는 것으로만 해석할 수는 없다. 환언하면, 인문예술융합교육이 다른 분야보다 노출의 강도가 높고 친숙하여 학습자의 수용능력이 높다는 것을 미리 인지하고 교수가 수업을 준비하기 때문에 높은 수치를 나타내는 것이라고 추론할 수도 있다.

<표9> 융합교육자의 차이

항 목	융합교육자의 차이						집 단 간 차 이 비 교 F값
	인 문 학 + 사 회 과학	인 문 학 + 예 술 학	사 회 과학 + 예 술 학	공 학 + 인 문 학	기 타	전 체 평 균	
해당 주제에 관한 교수 및 진행자의 지식과 경험 정도는? ***	4.11	4.13	4.00	3.86	4.77	4.17	2.16
질문에 답하고 학생과 참석자들의 흥미를 유도하는 교수의 능력은? **	4.01	4.08	3.88	3.78	4.05	3.96	0.32
교수가 학업 및 전공과 관련된 사례를 인용하는 정도는?	3.79	3.75	3.74	3.83	3.95	3.81	1.11
교수의 교육진행은 얼마나 효과적이었습니까? (예 : 발표기술, 시간운영, 강의구성) ***	3.69	3.97	3.94	3.86	3.87	3.87	2.12
교수의 설명은 알기 쉽고, 명확하였는가? **	3.85	4.07	3.79	3.92	4.23	3.97	3.21
교수의 평가 기준이 명확하였는가? **	3.88	3.93	3.74	4.00	3.82	3.87	1.22
교수의 평가 기준은 공정하였는가? **	3.89	3.94	3.91	3.89	3.82	3.89	3.45
교수의 강의 진도는 적절하였는가? **	3.87	3.97	3.76	3.89	3.90	3.88	3.01
교수의 강의 준비는 항상 철저하였는가? **	4.05	4.25	3.97	3.92	4.13	4.06	0.45
전 체	3.90	4.01	3.86	3.88	4.06	3.94	

주) * p<.05 ** p<.01 *** p<.00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함 (양측검정)

3. 융합교육 학습자

“교육 참가 전과 후에 교육과정에서 다룬 영역에 대해 여러분 자

신이 어느 정도 역량을 갖추고 있었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인문학+예술학을 수강한 학습자는 자신의 역량 변화정도(0.27)를 전체 평균에 비해 낮게 평가하였다. 사회과학+예술학을 수강한 학습자 역시 그러하다(0.06). 이러한 설문 결과의 결과는 예술학을 수강한 학습자가 융합교육의 의도에서 벗어나고 있음을 나타낸다.

인문예술 융합교육에서 인문학도 마찬가지지만, 특히 예술분야는 단기간에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것이 아닐 뿐 아니라, 그 계량의 정도도 다른 학문의 융합교육보다 명확치 않다. 따라서 학습자는 인문 예술융합교육을 통해 자신의 수학능력 변화의 속도를 더디게 느낄 수밖에 없고, 변화된 상태에 대해 스스로 계량하는 것도 쉽지 않다. 그 뿐만 아니라, 앞의 조사 내용에서 볼 수 있듯이, 이미 학습자의 인문 예술융합교육의 역량이 높은 수준에 있는 것도 변화의 폭이 적게 나타나는 이유이다.

그 외 전공별 무경험 학습자이자, 예술학을 전공하는 학습자에게 “나는 융합교육이란 무엇인지 친구에게 설명할 수 있다”라고 질문을 하였는데, 상당수가 설명할 수 없다(평균값 1.86)고 응답하였다. 또한, 융합단어의 경험(2.10), 융합교육의 실시여부(2.00) 등 많은 분야에서 예술학을 전공하는 학습자들이 융합에 대한 인식(2.62)이 낮게 나타났다.

4. 전문가(교수)설문

융합교육에 대한 전문가(교수) 집단과의 설문 결과는 다음과 같이 나타났다. <표11>에 나타난 바와 같이, 대학에서 실시되어야 하는 바람직한 융합교육의 형태는 인문학 + 기술과학 융합교육(64%)으로 나타났다, 인문학+예술학의 융합교육(58%)이 그 뒤를 이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보았을 때, 앞으로 인문학+예술학의 융합교육에 대한 투자가 요청된다. 또한, 전문가들에 의하면 인문학+사회과학+예술학(46%)분

야에도 향후 지소적인 투자가 요구된다.

<표11> 귀 대학에서 실시되어야 하는
바람직한 융합교육의 형태는? (복수응답 가능)

보기	빈도수	비율	순위
인문학+기술과학 융합교육	32	64%	1
인문학 + 예술 융합교육	29	58%	2
인문학 + 사회과학 융합교육	27	54%	3
인문학 + 사회과학 + 예술	23	46%	4
기술과학 + 인지과학 + 인문학 + 사회과학 + 예술	18	36%	5
사회과학 + 예술 융합교육	15	30%	6
기술과학 + 예술	12	24%	7
기술과학 + 기술과학 융합교육	10	20%	8
인지과학 + 인문 사회과학	10	20%	9
총계		50	

추가적인 설문에 의하면, 실제로 사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학습자들을 준비시키기 위해서 전공 위주의 교육보다 융합교육이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 이유로 인문학분야의 문제들은 과학 기술과 융합되어 발생하고, 과학 기술의 문제들은 윤리, 경제 등의 인문학 분야에 대한 이해가 없이 해결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설문 결과를 통해 전문가들은 인문예술의 융합교육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고, 시대적 대세인 인문학과 기술과학의 지식융합 속에서 인문예술 융합교육의 중요성을 여전히 높게 평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표12> 귀하가 생각하는 바람직한 융합교육의 형태는?

항 목	빈도수	비율	순위
인문학 + 사회과학 융합교육	22	59.46%	1
인문학+기술과학 융합교육	22	59.46%	2
인문학 + 예술 융합교육	18	48.65%	3
인문학 + 사회과학 + 예술	16	43.24%	4
기술과학 + 인지과학 + 인문학 + 사회과학 + 예술	14	37.84%	5
사회과학 + 예술 융합교육	8	21.62%	6
기술과학 + 기술과학 융합교육	6	16.22%	7
기술과학 + 예술	6	16.22%	8
인지과학 + 인문 사회과학	3	8.11%	9
총 계	37	100%	

<표12>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바람직한 융합교육 형태를 묻는 설문에서 인문예술융합교육은 인문학+사회과학(59.46%), 인문학+기술과학(59.46%)의 융합에 이어 3순위(48.65%)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시대의 필요성과 실용성의 중간지대에 위치한 것을 나타낸다. 실제로 인문학과 예술 둘 다 학습자에게 교육 할 때 변화 속도가 가장 낮게 나타나고, 그 실용성의 정도도 가시적으로 계량하기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3순위에 든다는 것은 전문가집단에서 인문예술융합교육의 중요성이 인지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예술과의 바람직한 융합교육의 형태로는 인문학-사회과학-기술과학의 순으

로 나타난 것을 알 수 있다. 더 나아가 인문학을 사회과학을 포함하는 대범주적으로 개념으로 생각할 때, 인문학(사회과학)과 예술 간 융합교육이 전문 교수집단에서 가장 필요하고 바람직한 융합교육의 형태로 기대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한편, 전문가에 대한 추가적인 질문에서 예술학의 융합교육이 잘 되고 있는 대학으로 한양대학교의 문화예술마케팅(인문과 예술 융합 과목)이 지목되었다. 그 이유를 살펴보면, 먼저 4년제 대학임에도 불구하고 애니메이션과 게임 등과 같은 현대사회산업과 밀착력이 높은 예술분야를 연구하여 곧 바로 사회에 진출할 수 있도록 해주는 제도 때문이다. 또한, 융합의 범위가 인문예술뿐 아니라 공학, 경영학, 경제학 등과의 융합도 함께 이루어져 다양한 융합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기 때문이었다.

IV. 결론 및 논의

본 연구는 한국대학의 인문예술융합교육의 실태에 대한 기존연구들의 문제점과 한계를 지적하고 융합교육의 현황과 실패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실패과약을 통해 본 연구는 인문예술융합교육의 유형 및 교육과정과 관련하여 몇 가지 중요한 사항을 확인할 수 있었고, 더 나아가 융합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발전된 논의의 기반을 확보할 수 있었다.

1. 본 연구는 교육유형과 관련하여 융합교육의 현황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얻을 수 있었다.

첫째, 국내대학에서 시행하고 있는 인문예술 융합교육이 초기단계에 있음에도, 상당히 활발하게, 다양한 유형으로, 그리고 적극적인 형태로 발전하고 있었다. 이것은 국내 대학이 인문예술융합교육을 인문학과 예술이라는 두 학제간의 순수한 형태의 접전이라기보다 인문사회 및 문화예술이 결합된 형태로 시행하고 있는 것과 관련이 있다. 특

히 인문예술 융합교육은 인문사회와 예술 분야의 교과들을 고르게 융합시키고 있으며, 더 나아가 경영학, 경제학, 공학과와 교과융합까지 연결하고 있었다. 경영학과 경제학 등과 같은 다른 전공과의 다면적인 융합을 음악분야보다는 미술, 영화, 공연 등에서 더욱 더 시행하고 있었고, 융합교육트랙에서는 영화와 같은 디지털 매체에 기반을 둔 전공이 공학과 융합을 이루는 비중이 높았다. 이런 다면적인 인문예술 융합교육은 사회적 수요와 실용적 차원에서 성공적인 융합유형으로 자리하고 있었다. 이것은 학제 간 또는 초학제적 융합형태라기 보다는 실용성 강화를 위한 통합 또는 융복합의 시도로 나타나고 있었다.

둘째, 전공분야와 교양교육 차원에서 인문예술 융합교육은 각각 상이한 목표를 가지고 시행되고 있었다. 공연예술이나 문화기획과 같은 전공의 경우는 사회적 실용성 강화를 위해 경영학이나 경제학, 법학 등과의 융합이 이루어지고 있었다. 그와 달리, 교양교육차원에서 인문예술융합교육이란 중세의 자유학문에 해당하는 인문예술과목들을 개발하여 학습자로 하여금 수강하게 하고 있었다. 이는 단순히 실용성 강화를 위해서가 아니라, 인문예술 분야를 넘어서 다양한 전문 분야의 우수한 인재 양성을 위한 자유로운 상상력과 고차적인 사고능력을 제공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아쉬운 점은 인문예술 융합교육이 교양차원이나 전공 영역이든 간에 자신의 분야 내에서만 이루어지고 있었고, 다른 분야와 상호간에 교육적으로 연계되는 사례를 찾을 수가 없었다. 하나의 예외는 서울대학교 자유전공학부에서 시행하는 연계전공, 융합전공 그리고 설계전공이다. 그러나 이 융합교육은 다른 전공학과나 학부와 연계되지 않았고, 단지 자신의 학부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융합교육의 다양한 과정이었다. 이점은 인문예술융합교육의 발전과 활성화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논의될 필요가 있다.

2. 인문예술 융합교육의 유형과 특징들은 다른 융합교육과 큰 변별력을 보여주지 못했다. 그렇지만 교육과정에 대한 인식과 경험의 측면에서 볼 때, 학습자와 교수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나온

몇 가지 긍정적인 결과들을 주목할 수 있다.

첫째, 학생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융합교육 분야별 수월성 차이의 결과에 근거하여 볼 때, 인식과 제도적 측면에서 인문예술융합교육은 다른 유형의 융합교육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이는 인문예술 융합교육이 다른 융합교육 보다 더 타당하거나 효과적인 교육으로 인정받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인문예술융합교육에 대한 이런 높은 평가는 타 분야의 융합교육에 비해 더 익숙한 노출성과 관련되어 있다. 이는 인문예술융합교육이 시작단계에 있지만, 일시적으로 유행하는 교육모델이 아닌, 오히려 그 가치와 중요성을 인정받으며 지속적으로 확산될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둘째, 앞장에서 인지했듯이, 융합교육을 받은 후 학습자의 역량변화 정도에 대한 설문에서 인문예술 융합교육에 대한 평가는 공학과 인문학의 융합교육과 사회과학과 예술의 융합교육 보다는 높았지만 전체 평균에 비해 낮았다. 이런 결과로 예술관련 융합교육이 융합교육의 목표에 잘 부합하지 않는다고 볼 수 있겠지만, 이것은 다른 이해를 요구한다. 인문예술융합교육은 단기간에 역량변화를 가져올 수 없는 가치와 감성적인 고유한 특성을 지니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계량의 정도도 타학문의 융합교육보다는 명확치 않을 수 있다. 이는 인문예술융합교육의 목표나 시행방법 그리고 그에 대한 평가기준이 다른 융합교육과 동일한 차원에서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는 점을 시사한다.

마지막으로, 불과 몇 년 전에 융합교육에 대한 반대와 우려가 높았던 것에 비해, 전문교수자를 대상으로 한 이번 설문조사에서 융합교육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가 나왔다. 이는 융합교육에 대한 인식도가 높아졌다는 것을 의미하는 동시에 융합교육에 대한 우려보다 신뢰와 기대가 상당히 커졌다는 것을 반영한다. 특히 전문교수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2번의 설문에서 인문예술융합교육은 대학에서 실시되어야 하는 바람직한 융합교육의 형태로 각각 2위와 3위를 차지하였다. 이는 기술과학과 인문학과 마찬가지로 인문예술융합교육도 복합적 사회문제 해결과 창의역량을 갖춘 인재양성에 적합한 대안적 교육모델로 인

식되고 있음을 반영하고 있다.

3. 이와 같은 연구결과에 기초하여 대학 내에서 인문예술융합교육의 적절한 자리매김과 활성화 방안을 위한 지속적인 논의들을 제안할 것이다.

먼저, 과학과 예술의 지식융합이 산업분야에서 실용적으로 새롭고 높은 부가 가치를 창출하는 것으로 인정받고 있으며, 더 더욱 창의적 인재 양성이라는 21세기 교육 정책과의 부합함으로써 교육 분야에서도 강한 기반을 다지고 있다. 이런 점에서 예술 교육의 주요 역할은 이미 예술 교육 그 자체에서 그 본연의 가치실현이라는 차원에서 보다는, 기술과학과의 상호적 긴밀한 협력에서 실용적인 가치 창출이라는 목적 달성에 집중하고 있다. 그렇지만 이런 예술의 보조적 입장과는 달리, 인문예술융합교육도 창의적 인재양성이라는 사회적 요구와 대학의 교육 목적에 부합한 교육모델로 활용될 수 있어야 한다. 인문예술융합교육이 아직은 개선될 문제점을 많이 가지고 있지만 실용성뿐 아니라 자유로운 고등사고능력을 함양시킬 수 있는 최적의 융합교육형태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논의가 이루어져야 한다.

둘째, 인문예술 교육이 기술과학과의 융합 차원에서만 그 가치와 역할을 보여줄 수 있다는 제한된 시각과 기술과학과의 융합차원에서만 실용적인 가치를 창출할 수 있다는 편향된 발상을 비판적으로 검토할 수 있어야 한다. 7) 인문사회융합교육, 인문예술 융합교육, 사회예술 융합교육, 그리고 기술, 인문사회, 예술의 초학제간 융합교육 등 다양한 융합교육이 존재하고 있고, 각각의 교육이 시대적 요구와 인재양성의 가능성을 높이려는 대학의 교육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수 있다는 인식에 대해 지속적으로 논의 하여야 한다. 인문예술 융합교육이 기술과학 중심의 초학제간 융합교육의 보조역할 차원이 아닌, 또

7) 지금 사회나 대학에는 기술, 문화예술, 인문사회의 지식융합만이 창의적 융합인재를 키울 수 있고, 복합적인 사회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분위기가 팽배해 있다. 이것은 융합교육을 과학중심의 통합교육으로 인식하는데서 일어나는 불균형화된 현상이다.

융합교육의 상위적 발전을 위한 전단계로 활용하는 것이 아닌, 그 자체가 융합교육의 발전을 위한 기반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지 그리고 복잡한 사회적 문제 해결에 필요한 21세기 창의적 인재양성에 부응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융합교육의 본질적인 취지를 살릴 수 있는 하나의 실질적인 대안교육이 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 열린 논의가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국내 대학에서 시행하고 있는 인문예술융합교육의 성과와 한계에 대해 엄정하게 평가하고, 그에 근거하여 체계적인 교육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장단기적으로 활성화 방안에 대해 논의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것을 위해 무엇보다도 인문학과 예술에서 상호 활용 가능한 연구 활동 지원체제 구축과 교과목 개발 및 교재 개발, 학습자의 학습능력에 맞는 다양한 강좌개설 등과 같은 시급한 과제들의 해결 방안들을 논의하여야 한다.

본 연구는 국내 대학에서 시행하고 있는 인문예술융합교육의 현황과 실태에 대한 결과를 도출하고, 그 실태이해를 근거로 인문예술 및 인문사회 및 예술간 융합교육의 자리매김과 활성화 방안을 위한 논의의 기반을 마련을 할 수 있었다는데 의의가 있다.

< 참고문헌 >

- 권성호·김진량·강경희, 2010, “유비쿼터스 시대의 융복합 교양 교육 과정 모델 개발 - 읽기, 쓰기, 말하기를 중심으로”, 『교양교육연구』, 제4권 2호 pp. 205-222.
- 권수미, 2012, “예술중심 융합교육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제언”, 『음악교육연구』, 제41권 2호 pp. 67-100.
- 김동윤, 2010, “창조적 문화와 문화콘텐츠의 창발을 위한 인문학적 기반 연구 : ‘융합 학제적’ 접근의 한 방향”, 『인문콘텐츠』, 제19호 pp. 417-442.
- 김영록, 2012, 『융합인재 우리는 함께 간다』, 서울: 티핑포인트.
- 김한승, 2014, “교양 교육에서 어떻게 인문학과 예술의 융합 교육이 가능한가?”, 한국 미학회 · 서울대 예술문화 연구소 주체 문화 융성 시대의 인문학과 예술(서울, 1월 25일).
- 김태희, 2012, “다학제간 융합적 접근에 의한 디자인 교육 방법론”, 『동양문화연구』, 제10집 pp. 261-290.
- 김형숙, 2012, “융합의 지형도 그리기 : ICT 기반 프로젝트 학습을 통한 융합인재교육과정 개발”, 『미술교육논총』, 제23권 3호 pp. 57-82.
- 김혜영, 2013, “융합교육의 체계화를 위한 융합교육의 방향과 기초 융합교과 설계에 대한 제언”, 『교양교육연구』, 제7권 2호 pp. 11-38.
- 박일우·기정희, 2014, “인문학·예술 융복합 신규교과목 <그림읽기로 세상보기> 개발”, 『교양교육연구』, 제7권 6호 pp. 11-41.
- 서기자, 2013, “융복합교양교과목 개발과 효과에 대한 고찰”, 『교양교육연구』, 제7권 3호 pp. 171-195.
- 서영식, 2012. “융복합 교육을 위한 철학적 고찰”, 『철학논총』,

67(1), 145-163.

서정목·권영수, 2012, “교양과목, 특수목적언어 및 전공과목의 융복합 교육을 통한 국제전문자격증 취득방안, 미국 공인회계사를 중심으로”, 『교양교육연구』, 제7권 1호 pp. 213-254.

신동희, 2011, 『스마트 융합과 통섭 3.0』, 서울: 성균관대학교 출판부.

손동현, 2009, “융복합교육의 기초와 학부대학의 역할”, 『교양교육연구』, 제3권 1호 pp. 21-32.

송위진, 2010, “과학기술과 인문사회융합연구의 필요성과 과제”, 『과학기술정책 연구원』, 제47호 pp. 3-27.

스노우 저·오영환 옮김, 2001, 『두 문화』, 서울: 사이언스 북스.

오세곤, 2008, “예술 융합교육, 그 현황과 가능성”, 『모드니예술』, 제1권 1호 pp. 157-164.

오정심, 2009, “글로벌 융합 시대의 문화시설 운영방안 연구”, 『인문콘텐츠학회』, 제15호 pp. 79-97.

윤린·김인선·최병욱, 2011, “융합교육의 현황 및 향후 방향: 한밭대학교의 사례 중심으로”, 『공학교육연구』, 제14권 3호 pp. 55-60.

이용관·이우석·심혜경, 2006, 『융합형 학제 해외 사례 연구』, 서울: 중앙대학교 출판부.

임기원, 2011, 「인문사회분야 학제 간 융합연구의 증장기 발전을 위한 중점 추진 전략과제 발굴연구」 한국연구재단 문화 융복합 분야 정책연구 보고서.

이희용, 2011, “지식융합 교육을 위한 교과목 개발”, 『교양교육연구』, 제5권 2호 pp. 11-37.

_____, 2012, “한국대학의 교양교과목 개발의 실태와 방향성 고찰”, 『교양교육연구』, 제6권 4호 pp. 263-292.

_____, 2013, “융복합 교양교과목 <글로벌 시민정신> 개발 연구”,

『교양교육연구』, 제7권 3호 pp. 197-232.

임기원, 2011, 「인문사회분야 학제 간 융합연구의 증장기 발전을 위한 중점추진 전략과제 발굴연구」 한국연구재단 문화 융복합 분야 정책연구 보고서.

전선자, 2011. “문화예술교육과 인문학적 바탕”, 『한국문화화 예술』, 제8집 pp.103-127.

정재찬, 2010, “문학체험의 자기화를 위한 문화 혼용의 글쓰기”, 『작문연구』, 제10집 pp. 43-79.

조정래, 2013, “문화예술교육에서 애니메이션에 대한 논의 분석”, 『만화애니메이션연구』, 제31호 pp. 29-55.

조주연, 2008, 『인문정책과 경제사회·예술·과학기술 정책의 상호연계 증대방안』, 서울: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채현경·최유미, 2012, 『예술중심 융합프로그램 개발 연구』, 서울: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최재천·주일우, 2007, 『지식의 통섭』, 서울: 이음.

한지혜, 2006, “프랑스에서의 문화예술교육 정책과 시사점”, 『교육이론과 실천』, 제16권 pp. 85-86.

허영주, 2013, “대학 융합교육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교육종합연구』, 제11권 1호 pp. 45-79.

홍성욱, 2012, “성공하는 융합, 실패하는 융합”, 김광웅·이남인·민경찬·장대익·이덕일, 『융합학문, 어디로 가고 있나?』, 서울: 서울대 출판 문화원, pp. 308-350.

_____, 2013, 『융합이란 무엇인가』, 서울: 사이언스 북스.

홍병선, 2009, “대학교육에 대한 사회적 요구와 대안 모색 - 교육경쟁력 강화를 위한 융합교과목 개발”, 『교양교육연구』, 제3권 2호 pp. 51-78.

홍병선, 2011, “융합교육을 통한 기초교양교육 활성화 방안 연구”, 『교양논총』, 제4집 pp. 140-161.

- Cresswell, John W. 저, 김영숙·류성림·박관우 역, 2013, 『연구방법』, 서울: 시그마프레스.
- Guillén, Mauro F., 2003, *The Limit of Convergence*,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 Wilson, E. O. 저, 최재천·장대익 역, 2005, 『통섭』, 서울: 아이언스 북스.

A Study on the Present State of Humanities and Arts Convergence Education in Korean Universities

Lee Hee-yong
(Seoul Theological University)
Yoon Ah-young
(Baekseok Arts University)
Kim Jae-deunk
(Sogang University)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was to examine and to investigate the current situation and present state of humanities and arts convergence education in Korean universities. Different from previous research that only dealt with narrow topics, theoretical reviews, presentation of models, or curriculum designs, this research widely scrutinizes overall educational practices in Korean universities. At the outset previous research related to humanities and arts convergent education and forward education of creative thinking is reviewed. It is confirmed that theoretically refined outcomes of the meaning and need of convergent education in the fields of humanities and arts are still insufficient, and that existing empirical research is limited to the mere introduction of institutional and curricula models of convergent education. Therefore this research began with a focus group interview (FGI) with specialists in interdisciplinary and convergent education in the humanities and arts, and applied its results to

the consultation of the survey on the views of the teachers and students who have experienced the convergent education program in the university. The results of the survey indicate that humanities and arts convergent education has been practiced in various types and curriculums. However, they also indicate that there are several things that should be improved upon for the educational quality in this area, including teachers' professionalism, content development, and the educational environment for teachers and students engaged in convergent education. This research has been designed to provide reliable information on the current situation of convergent education, and to establish a foundation for further discussion about its direction and future policies.

Keywords : interdisciplinary convergence Education,
humanities and arts convergence education,
multi-layered convergent education